

인터뷰 2 조계종 32대 총무원장 당선 지관 스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로 화합 모색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지관 스님은 10월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1994년 종단개혁과 98년 종단 사태 과정에서 정계를 받은 스님들에 대해 "절차를 밟아 문제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 지관 스님은 또 본지에서 실시한 총재 직위에서 "비구니부" 신설을 통해 참여의 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과 총재 직위에서 밝힌 지관 스님의 향후 종단 운영 계획.

▲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종단의 최우선 과제는?

- 화합과 안정이다. 이를 위해 승가의 전통인 '공의'에 입각해 '공평무사한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정착해 능력 있는 사부대중이 종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원로대덕 큰스님과 중진스님,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으는 '수평적 의사 결정 구조'를 만들어 종단의 화합과 안정에 힘을 것이다. 또한 선거법 등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중앙총회를 비롯한 종무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보완해 나갈 것이다.

▲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한 방안은?

- 조계종은 1962년 통합 종단 출범 이후 1994년 개혁과 98년 사태 와중에서 별다른 당한 스님들이 있다. 당시 종단을 위한 생각과 입장이 달랐지만 이제는 10여년이 흘렀다. 이 분들의 정계를 풀어 종단에 참여토록 해 힘을 합치자는 것이다. 종도들의 중지를 모으고 중앙총회의 절차 등을 밝으며, 반대하는 분들의 이해를 구한 뒤 별다른 잡음 없이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다.

▲ 출마 기자회견에서부터 수행과 전법을 강조했다는데?

- 우리 종단은 대형 불사에 치우친 감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수행이나 성보문화 등 정신적인 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해외에 한국불교를 더 많이 알리는 길이고, 국위를 선양하는 길이다. 앞으로 외형 불사를 줄여야하며 수행 분야를 확충할 계획이다.

▲ 교구별 자치권한을 강화할 구체적 실현 방안은?

- 우선 중앙총무원의 권한을 교구본사의 상황에 맞게 이양할

으로써 중앙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교구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겠다. 중앙총무기관은 교육과 포교, 문화, 사회봉사 등 중앙기관의 업무를 보다 집중화해 교구 특성에 맞는 종책인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각 교구가 점차적으로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각 교구는 전통과 지역적 특성 등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교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권형 종무행정 기틀을 확보해야 한다.

▲ 포교정책 비전은?

- 기존의 낡은 관행과 사고를 벗어 버리고 '현대와 전통'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종단의 포교전략이 필요하다. 수행과 전법 포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1천만 신도 조직을 대표하는 중앙신도회 강화 등 현실에 기반한 신도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맞게 온라인 포교를 활성화할 것이며, 해외 교구 신설의 전 단계로서 총무원내에 해외 불교 담당 전문 부서를 마련해 세계 곳곳에 있는 한국불교사찰 등 포교현황과 관련 인력을 파악해 '국제불교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또 불교사상에 입각한 사회운동을 펼쳐 보다 많은 대중의 참여와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민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동체대바사상에 입각한 '자비의 나눔' 운동을 전개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대 사회적 '자비나눔' 전개 국제불교 네트워크 형성

신뢰를 이끌어냄으로써 대사회적 위상을 제고해 나갈 생각이다.

▲ 비구니스님들의 종단운영 참여정도와 참여폭에 대한 구상은?

- 우리 종단은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로 구성된 사부대중의 공동체이다. 최근 비구니스님들의 참종권에 대한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종단은 기존의 관행화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종헌 집행에 정해진 제도를 취지에 맞게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구니스님들의 종무행정 참여를 독려하고 '비구니부' 등의 신설을 통해 참여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다.

▲ 재가불자의 종단운영 참여정도와 참여폭에 대한 소신은?

- 중앙총회 등 중앙총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능력 있는 전문 재가자들을 종단의 유관 부서에 대거 등용해 이들의 종책인을 종무행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사찰운영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찰의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전국 사찰에서 재가자들의 참여를 확대해나갈 생각이다.

우리 사회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종단 역시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부합하면서 민족 종교 본연의 전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열린 종단'을 구현해야 한다.

▲ 장기기증운동에 대한 견해는?

- 법장 스님 열반 후 장기기증을 하면서 다비식 없는 장례가 치러졌지만 장기기증과 다비가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 장기기증서약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장기기증을 권장해나갈 생각이다.

▲ 그동안 해 오던 학술관련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총무원장 자리는 조계종 뿐 아니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자리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여러 직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없더라도 <가산불교대사람> 등을 편찬하는데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10대 분야 주요정책

- 1. 수행중흥 진작**
△종지 중흥의 수호와 전승 △종단 수행 체계의 정립 △종단내 위계질서 확립 △선사상 연구원 설립 및 학술대회 개최
- 2. 교구본사 역량 강화, 교구활성화 실현**
△각 교구본사 특성에 맞는 분권종무행정 기틀 마련 △달사주지 인사권 이하 주요 종무 권한 교구본사 상황에 맞게 이양 △중앙 종단 예산과 지방교구 예산의 균형편성 △현안 (경제, 문화, 환경 등)에 따른 권역별 사찰 네트워크 운영 △교구문화 화재 관리를 위한 국고지원 확충 △본말사 교역지, 일반적 종무원 교육 강화, 중앙총무기관 종무원 순환 근무제 도입
- 3. 열린 중앙종단, 효율적인 종무기관 실현**
△능력중심의 공평무사한 인사제도 정착 △종무행정 전진화 및 표준화 관리 △교육원, 포교원 위상강화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종단 자산의 효율적 관리(종단 재정 확대 기획단 구성) △분담금 정책 현실화 △비구니부 신설(교역지 인사 등) △호법부의 체계적 운영(사건 유형분석 재발 방지 및 건전한 승풍 확립) △총합민원센터 실질적 운영(각종 민원 one-stop service 및 on-line 시스템 구축)
- 4. 수행 및 교육**
△강원 및 선원 등 수행기관 지원 확대 △승과와 법계에 따른 교구별 재교육 시행 △역경사업 기반 조성 (한문경전, 범어원전)의 역경, 각종 사전 편찬 △역경사업의 전산화 지원 △상설 행사 교육원 설립 △해외 유학승려 지원 방안 마련 △종립학원 위상 강화 및 전문교육기관 지원 △불자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인터넷 불교대학 설립 △미래사회의 리더십 교취와 전략 수립을 위한 '불교지도자교육과정' 개설
- 5. 전법 및 포교**
△수행과 전법포교 활동의 체계적 지원 (지원예산안 편성) △현실에 기반한 신도 정책 수립 (중앙신도회 지원 강화) △온라인 활성화 (불교리브사이트 개설) △권역별 국제 교류 지원과 외국인 포교 거점 마

능력중심 인사제도 확립 · 종무행정 표준화

비구니부 신설 · '불교시민사회센터' 설립

면 △계층별 포교 활성화 (각 계층별 사찰 시설 등과 네트워크 구축)

6. 문화
△민족문화의 전통 계승과 보수에 대한 국가예산 확충 △폐사지 복원과 전통사찰 복원에 대한 국가예산 확대 △미지정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방안 마련 △템플스테이 기능 및 국가 지원 강화 (권역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불교문화원형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안 마련 △불교무형문화재 제도 도입 △불교문화 예절 대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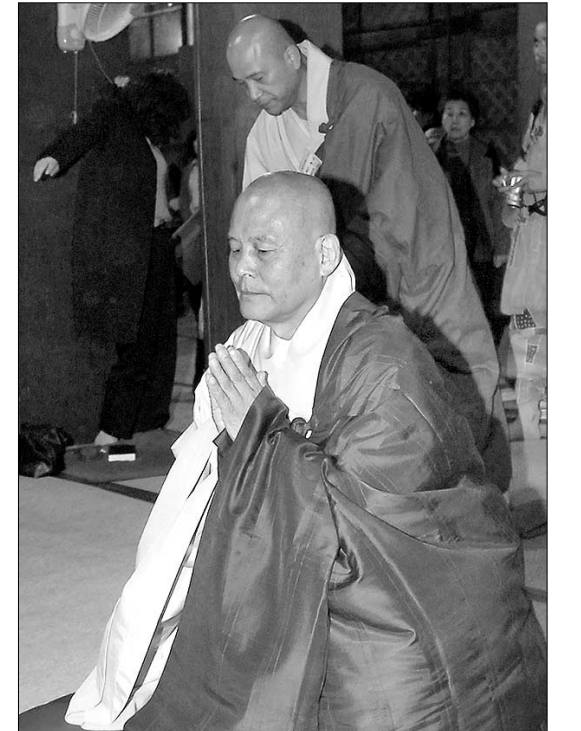
7. 승가 및 재가종무원 복지향상
△정부 및 각종 기금 등과 연계한 '승려 노후복지 사업안' 마련 △승려노후복지기금 마련 △교구별 승려노후복지원 설립 추진 △승납별 종단 차원 연금식 보시 지급 추진 △승려 다비장 신설 및 다비식 지원 △중앙총무기관 재가종무원에 대한 복지제도 강화 △사찰 일반적 종무원의 처우개선 및 각종 복지 혜택 부여 △승당 의료 및 복지기관 이용시 혜택 부여

8. 대사회 활동
△ '불교시민사회센터' 설립 지원 (불교 인력풀로서의 역할) △ '자비의 나눔' 운동 전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인권 및 생명환경분야에 대한 종단적 대책 및 지원 △불교 시민사회단체 지원법(가칭) 제정과 추진 △북한 지역 사찰과 문화재 원형 파악, 복구지원 강화 △남북

불교 학술 교류 및 연구 △남북 사찰간 결연 추진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산하 '북한 불교연구소' 설립 및 체계적 연구 강화

9. 국제 불교 교류 및 협력
△ 해외 불교 담당 전문 부서 마련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조계종 산하 복지시설 지원 △ '국제불교 네트워크' 구성 및 '세계불교대회' 유치 △ 해외 포교전진지 발간

10. 국가정책 및 대정부 관계
△ 현안 '불교관계법' 개정을 위한 대정부 교섭력 강화 △정부 및 각 정당과의 불교협력 간담회 정례화 추진 △대정부 공약과 정책 이행 추진 △국립공원 제도 개선 추진



10월 31일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지관 스님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있다. 사진=고영애 기자

주요 이력

- ▲ 학력
1963. 7. 30 경남대 졸업
1969. 8. 30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석사학위 수여
- ▲ 수행경력
1976. 9. 4 동국대 대학원 철학박사학위수여
1976. 9. 4 동국대 대학원 철학박사학위수여
- ▲ 수행경력
1947. 10. 3 해인사에서 자운성우 율사를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53. 5. 24 통도사에서 자운성우 율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
- 1965. 11. 25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2선 역임
1968. 8. 7 동국학원 이사 취임
1970. 11. 25 동국학원 감사 취임
1970. 11. 20 해인사 주지 취임
1972. 7. 20 조계종 중앙총회 부의장 취임

- 1973. 1. 25 조계종 총무부장 취임
- 1980. 8. 7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 취임
- 1980. 8. 11 사회정화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 1984. 1. 30 동국대 교육대학원 원장 취임
- 1986. 1. 16 동국대 11대 총장 취임
- 1987. 4. 26 문화공보부 문화재위원 취임
- 1993. 12. 20 해인사 주지 취임
- ▲ 수상경력
1969. 8. 23 조계종 중원교육공로표창 수상
1982. 11. 24 서울시 경의사회구원 표창 수상
2001. 10. 20 문화관광부 은관문화훈장 서훈
2001. 11. 20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2006. 8. 12 만해대상 학술부문상 수상
- ▲ 현재 활동 상황
조계종 원로의원, 동국학원 이사, 동국대 명예교수,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 ▲ 불교학연구
1982. 5. 11 불교대백과사전편찬발원 하역 현재 총 7권 발간

- 1991. 6. 16 한국불교학연구를 통한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해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개원
- 1991. 12. 5 소장연구자 육성을 위해 '가산상' 제정, 전문학술지 <가산학보> 창간
- 1992. 4. 14 해인사1000년의 역사를 <가야산해인사지>로 엮다.
- 1992. 12. 5 회담을 기념하여 한국불교학연구자 100인의 연구성과를 총집성한 <한국불교 문화사상사상하 출간>
- 2000. 10. 25 한국불교승들의 400여기행정을 정리한 <역대고승비문총서(총 7권) 출간>
- 1991-현재 국내외연구자 초청 '수행동행포럼' 연례 개최 한국불교학 진흥
- ▲ 저서
<지문경론> <대혜서장> <도서> <선요> <절요> <한국불교 소의경전 연구> <요경서설> <남북전통 부 율장비교연구> <비구니 계율 연구> <불교교단 발달사> <계율론> <조계종사> <가야산해인사지> <역대고승비문총서> <가산불교대사람>

수안사 삼동결제 큰스님초청 자비도량참법 100일정진 및 일체영가천도기도법회

귀의삼보 하삼고 불자님의 가정에 불은이 함께 하여 행복과 건강이 증만하기를 축원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면산 수안사에서는 삼동결제를 맞이하여 수안사 삼동결제 큰스님초청 자비도량참법 100일정진 및 영가천도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참회는 이미 과거에 지은 묵은 업장을 녹여, 맺힌 것은 풀고, 풀 것은 더욱 원만하게 함으로서 참된 행복을 얻어가는 묘법입니다. 대집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년 묵은 때문은 옷도 하루아침에 세탁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백집 중의 쌓인 모든 악업도 참회하면 불법의 힘으로 날 한 한 시에 모두 능히 소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도량참법』은 중국의 황제 양무제가 생전의 업보에 의해 구렁이로 태어난 황후 치씨를 위해 지공스님의 권고에 따라 편찬한 참법(懺法)으로, 참회문의 총서라고 할 만큼 여러 경전들에 들어있는 참회의 방법과 내용들을 일정한 체계로 엮어낸 최고의 참회의식법입니다.

이 참법(懺法)을 닦은 사람은 영멸을 얻어 죄가 없어지고 복이 생겨나며, 유주무주 고힌을 천도하여 길이 피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참법에 의하여 원결을 풀면 곧 원수가 없어지며, 이 참법은 병을 낫는 참다운 약양이며, 어두움을 깨뜨리는 밝은 등불이며, 못 중생을 이롭게 하며, 그 은혜는 사마세계에 가득 차 헤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수안사에서는 참회정진을 통해 묵은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조상영가 및 유주무주 영가를 천도하여 행복을 얻어나가기 위한 삼동결제 큰스님초청 자비도량참법 100일정진 및 영가천도기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업장과 액난을 소멸하시고, 복덕이 구축하여 마음속으로 염원하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고, 구경성불하시길 바랍니다.

- 입재 : 2005년 11월 5일(음 10. 4) (토) 오전 10시 무진장 큰스님
- 1 재 : 2005년 11월 14일(음 10.13) (월) 오전 10시 지 관 큰스님
- 2 재 : 2005년 11월 24일(음 10.23) (목) 오전 10시 지 성 큰스님
- 3 재 : 2005년 12월 4일(음 11. 3) (일) 오전 10시 성 타 큰스님
- 4 재 : 2005년 12월 14일(음 11.13) (수) 오전 10시 흥 교 큰스님
- 5 재 : 2005년 12월 24일(음 11.23) (토) 오전 10시 월 운 큰스님
- 6 재 : 2006년 1월 3일(음 12. 4) (화) 오전 10시 모 허 큰스님
- 7 재 : 2006년 1월 13일(음 12.14) (금) 오전 10시 밀 운 큰스님
- 8 재 : 2006년 1월 23일(음 12.24) (월) 오전 10시 정 휴 큰스님
- 9 재 : 2006년 2월 2일(음 1. 5) (목) 오전 10시 근 일 큰스님
- 회향 : 2006년 2월 12일(음 1.15) (토) 오전 10시 세 민 스님

- 법회주관 : 수안사 회주 세 민
- ※ 자비도량참법은 총 10권(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매일 1권씩 읽으면서 10일간 참회정진하여 자비도량참법 전체를 한 번 독송과 동시에 큰스님을 모시고 영가천도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렇게 큰스님초청법회와 천도법회를 100일간 10번 봉행하게 됩니다.
- ※ 영가천도제는 천가와 외가의 5대조 영가까지 위패를 모시고 열흘마다 봉행하오니 영가 명단을 미리 수안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전화 : 전화 : (02)587-4677, 3213 / 팩스 : (02)522-5666
- ☎ 계좌번호 : 외환은행 108-18-51234-7 (예금주 : 박 경열)
- ☎ 오시는길 : 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3번 출구 → (도보 7분) 두번째 GS칼텍스 주유소 뒤 3층 건물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대한불교조계종 우면산 수안사 회주 세 민 · 주지 현 중 합장